

제73차 운영위원회 개최



▲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0월 16일 제7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.

1대 한설비건설공제조합(이사장 이영식)은 지난 10월 16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7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△2007년도 관리채권 상각 승인(안) △신용운영자금 좌당 용자한도 변경(안) △총회개최(안) △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원안대로 의결했다.

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박종학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최근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경기회복에 대한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, 건설업에 대한 경기전망은 불투명하고 특히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업체 난립에 대한 저가수주 경쟁 등 비 합리적인 경쟁으로 경영활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”고 밝히며 “그러나 정부에서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,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하여 이런

어려움을 극복하자”고 강조했다.

박종학 위원장은 또한 “건설보증시장의 개방으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간의 경쟁이 예상되는 등 공제조합의 경영환경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”며 “조합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최고의 건설보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

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△조합원 및 출자좌수 변동현황
- △보증 및 용자 실적
- △영업수입 실적
- △관리업무 현황○

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,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시행



1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(이사장 이영식)은 2008년 1월부터 근로자재해공제사업을 시행한다.

근로자재해공제사업은 조합원사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조합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.

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조합원사가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보다 10% 절

감된 보험료로 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현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손해보험사(동부화재, 메리츠화재, 흥국쌍용화재)와 업무제휴를 통해 공제계약 체결절차 및 보험료 산정, 사후관리 운영 등 각종 보험기법을 전수 받아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 2008년 1월 이후 조합원사면 누구나 전국 조합 지점(영업소) 및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 망을 활용, 손쉽게 근로자재해공제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 ☉